

90.6.5

대졸 취업률 뒷걸음

1년새 1.9%포인트 하락

올 대졸 취업률이 지난해보다 1.9%포인트 떨어진 60.5%로 집계돼 최근 증가세를 보이던 취업 비율이 4년만에 하향추세를 나타냈다.

4일 문교부에 따르면 4월1일 현재 89년 8월과 90년 2월 졸업자 16만7천2백55명 중 군입대·진학·유학 등을 제외한 취업대상자 13만2천6백27명의 60.5%인 8만2백63명이 취업, 전년도에 비해 3천6백69명이 늘어났으나 취업률은 1.9%포인트 낮아졌다.

이같은 취업률은 86년 56%, 87년 58.7%, 88년 60.3%, 89년 62.4% 등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내던 것이 올해 처음으로 하락한 것이다.

계열별로는 의학계(91.4%), 자연계(65%), 사회계(62.3%)는 전체 평균취업률보다 높은 반면 예체능계(55.7%), 인문계(50.9%), 사범계(46.8%)는 평균을 밑돌았다.

그러나 사범계열의 경우 오는 9월 1천8백명이 신규임용될 예정

이어서 최종 취업률은 60.1%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.

또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이 72.2%로 지난 해보다 1.7%포인트 낮아졌고, 지방은 55.4%로서 1.8%포인트 하락했다.

성별로는 남자가 72.9%로 전년보다 1.9%포인트 낮아졌으나 여자는 41.4%를 나타냄으로써 1.2%포인트 하락에 그쳤다.